

◇고령환자에서 관상동맥 우회로조성술에 관한 연구

황재준, 김학제, 이송암, 김태식, 신재승, 손영상, 최영호

고려대학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최근 관상동맥 질환의 증가와 함께 고령환자의 수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. 또한, 수술 수기의 발달과 새로운 방법의 개발로 점차 더 나이든 환자에서도 내과적 치료보다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환자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의 임상 분석을 시행하고 나아가 위험인자를 규명하고자 한다.

방법 : 1991년 3월부터 1998년 6월 사이에 시행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환자 224명 중 65세 이상인 총 45명을 대상으로 후향성 분석을 시행하고, 같은 기간의 65세 미만인 군과 비교하였다.

결과 : 평균연령은 68 ± 1.41 세 [범위: 65~74세]였다. 남자 환자가 26명, 여자 환자가 19명 이었다. 계획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가 41명이었고,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4명이었다. 문합수는 평균 3.62 ± 0.81 개/인이었으며, 평균 대동맥차단시간은 69.84 ± 18.48 분이었다. 협심증 등급은 술전에는 30명 이 III, IV등급이었으나 술후에는 대부분인 44명이 I, II등급으로 향상되었다. 좌심실 구출률은 술 전 $55 \pm 7.07\%$ 에서 술후 $65 \pm 7.07\%$ 로 향상되었다. 술후 합병증으로는 창상감염이 5례, 급성신부전 증이 2례, 술후 심근경색이 1례, 폐렴이 1례 있었다. 술후 2례의 사망환자가 있었으며 사망원인은 저심박출증이 1례,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1례였다. 사망률은 4.4%로 동기간의 65세미만 군의 사망률 2.86%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[$p > 0.05$]. 다만 술후 중환자실 체류기간과, 재원 기간은 각각 평균 4.48일과 19.2일로 대조군의 3.37일과 15.5일에 비해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 [$p < 0.05$]. 사망환자 2명과 추적관찰중 잃은 9명을 제외한 총 34명에서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고, 평균 추적기간은 23.58 ± 19.56 개월 [범위: 1~73개월]이었다. 후기 합병증으로는 흉골염증, 폐렴 이 각각 1명씩 있었으나 심장질환과 연관된 사망례는 없었다.

결론 : 최근에 내과적 중재술의 발달과 약물요법의 발전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연령이 고령화 되는 경향이 있다. 또한 고령환자에서 나이 자체를 위험인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, 나이만이 문제는 아니었다. 본 연구에서 임상례가 많지 않아 의미있는 술전위험인자를 얻지는 못하였으나,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지 않은 사망률과 좋은 장기 성적을 볼 때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.